영원한 생명, 무량한 광명은 서쪽에 있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㉖ 정토삼부경 2 〈무량수경(無量壽經)〉

극락은 왜 서쪽에 있을까? 동쪽은 해가 뜨는 근원의 자리로 본각(本覺)인 불성(佛性)을 나타내니 금덩이와 같고, 서쪽은 완성된 자리, 시각(始覺)인 부처를 이룬 것이 마치 세공된 보석과 같다. 들어갈 때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수기라는 약속을 받아 갈 수 있는 극락부처학교는 그 입학자격 자체가 스스로 원해야 갈 수 있다. 평소 염불로 자신이 원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곳, 또한 살아서도 극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평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곳에 갈 수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람답게 사는 법이 있으니 바로 팔정도(八正道)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 정도는 살아줘야 극락문턱에라도 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극락은 부처학교라면 그 곳엔 누가 있어 우리를 교육시키는가, 바로 아미타부처님이다.

아미타불은 누구인가. 까마득한 과거 어느 세월 속에 거룩한 부처님이 탄생하시니 이름이 정광부처님이다. 그 분의 뒤를 이어 50분의 부처님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인연 따라 열반에 드셨다, 그리고 51번째 세자재왕부처님이 나오신다. 당시의 왕이 세자재왕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하여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니 법장(法藏)비구다.

"원하옵나니 저도 부처가 되어 성스러운 부처님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처님들처럼 저도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지 못하는 중생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안락한 곳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상상 이상의 우주 최고의 불국토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 불국토에 오고자 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광명을 보내 길을 안내하고 싶고 도착한 뒤에도 그들을 청정하게 하며 나고 죽는 사이에 겪게 되는 온갖 고통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쳐 교화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든지 더 할 나위없는 즐거움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불국토를 기필코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서원이 이와 같으니 부처님은 증명해주소서, 이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 바쳐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법장비구의 광대한 서원을 들으신 세자재왕부처님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우주공간에 펼쳐져 있는 이백일십억이나 되는 세계의 특징과 장점들을 자세하게 홀로그램으로 영화처럼 보여주었다.

법장비구는 그 영상 속에서 자신이 세우고 싶었던 극락세계의 마스터플랜을 다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겨 견고한 의지와 불퇴전의 정진력으로 용맹스럽게 수행하였다. 모든 중생의 안락한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목숨 걸고 정진한 법장비구의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르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렇게 수행하다 다시 세자재왕부처님 앞에 나아가 결연하게 말한다.

"부처님,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발원한 48가지가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면 그 때 저도 부처가 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다시 가려하오니 저를 위하여 가피하여 주소서.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시는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몸에서는 황금빛 광채가 나고. 멋진 몸을 지녀 못난 이가 없고, 모두 숙명통을 얻어 과거 자신의 삶을 다 알고, 천안통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고, 타심통을 얻어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며, 신족통을 얻어 수 많은 세계를 순식간에 통과하고, 이들은 모두 번뇌로 아집을 일으키지 않으며, 반드시 성불할 인연의 삶을 이 생에서 살도록 그들을 이끌 때 나의 광명은 백천억 나유타세계를 다 비출 것이다. 수명 또한 한량이 없으며, 이 곳에 태어나려는 이들을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니 내 이름을 열 번만 불러도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단 나쁜 짓한 이들은 제외한다. 또 보리심을 내어 항상 공덕을 닦은 이가 임종할 때엔 내가 대중과 함께 가서 그를 맞이하여 극락으로 인도할 것이다."

48가지의 대원을 이룬 법장비구의 이야기를 들은 아난이 부처님께 법장비구가 성불했는지 묻자, "물론이다. 십 겁 전에 성불했지. 바로 아미타불이란다. 영원한 광명인 무량광불(無量光佛), 한량없는 생명을 지닌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 불리며 극락세계를 건설하여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그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의 힘이 그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찬찬히 설명하시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 자애로워 그 곁에 앉아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울 반야사 주지〉

불교와 유교, 기독교는 같은 가르침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㉕ 금강경 17분

금강경 17분에 부처님께서 "일체법(一切法)이 무아(無我) 무인(無人) 무중생(無衆生) 무수자(無壽者)라"하신 말씀을 타력 신앙종교의 가르침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거나 지었다면 사람들은 이는 당연히 내가 소유한 내 집이라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잘 실천하여 아상이 없어진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집을 내 집이 아닌 부처님의 집이요, 부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집으로 여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힘써 번 돈을 으레 내 돈이라 생각하지만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내 돈이 아니요, 부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돈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쓸 때도 돈의 주인이신 부처님께 여쭈어 승낙을 얻은 연후에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란 마음 밖의 형상이 있는 부처님이 아닌 마음속의 부처님, 즉 '참나'를 의미하며,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나님',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마련해서 살고 있는 이 집은 당연히 내 집이며,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이해타산에 따라 팔려 하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자신은 주인이 아니고 단순히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부처님(또는 잠재의식)의 목소리를 들어 승낙을 얻은 후에 팔려 합니다. 지공무사(至公無私)하신 부처님께서 집을 팔라고 승낙하시는 응답을 받은 경우, 반드시 부동산은 팔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말씀도 없으신 부처님의 승낙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을 간절히 부처님께 바칠 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명확한 느낌으로, 또는 선명한 꿈으로 응답을 표시하십니다. 또는 존경하는 스님의 모습이 되어 말씀하기도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은 집을 팔고 싶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집이 팔리면 내 기도의 힘이라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 불자들은 집을 판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 공부로 자력과 타력이 다르지 않음을 아는 불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을 불자들과 다르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妻), 자식 하면 내 처, 내 자식으로 여겨 그들을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은 내 처, 내 자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부처님께서(잠재의식이) 보내주신 인연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설사 원수 같은 처자식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내 진심(嗔心) 닦으라고 보내주셨구나 하며 감사히 맞이합니다.

주인이신 부처님께 일단 여쭈며 주인이신 부처님의 응답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무아(無我) 무인(無人) 무중생(無衆生) 무수자(無壽者)를 제대로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밝아지는 길입니다. 또한 무능을 능력으로,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사지(四智)와 유식삼성(唯識三性)

우리가 금생에 사지(四智)를 체득해 생사고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잡이가 생활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활구참선법인 간화선 '이 뭣고' 이다.

전의(轉依)로 얻은 네 가지 청정한 지혜를 사지라 하는데, 전의는 번뇌에 오염된 여덟가지 마음 작용을 청정한 상태로 변혁시킨다는 뜻이다. 전의는 불가사의한 전식득지(轉識得智)로서 자신의 존재기반 자체를 허망한 상태(변계소집성)로부터 '이 뭣고'를 수행함으로써 원성실성으로 변형시켜 완전한 불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온갖 분별이 끊겨 마음도 대상도 없기 때문에 이분법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스스로 체득한 내면의 깨달음이다.

전오식(前五識)을 질적으로 변혁시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모두 성취하는 성소작지로 바꾸고, 제육식(第六識)은 모든 현상을 잘 관찰하고 자유자재로 가르침을 설해 중생의 의심을 끊어주는 묘관찰지로, 제칠말나식은 사번뇌가 소멸됨으로써 자타의 평등함을 깨달아 대자비심을 일으키는 평등성지를 얻고, 제팔 아뢰야식은 모든 종자가 소멸돼 마치 온갖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내는 크고 맑은 거울 같은 청정한 무분별지인 대원경지 성취를 말하고, 마음이 없어 생각하거나 헤아리지 않으니, 이는 출세간의 지혜가 된다.

그러나 지식으로 쌓인 중생의 인격은 한 생각으로 인(因)하여 전생의 인과에 의해서 아뢰야식(장식)에 쌓아 놓은 업식을 따르기 때문에 사회 저명인사나 대통령의 인격도 양면성이 있어 하천(下賤)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전의는 불가사의한 전식득지로서 자신의 존재기반 자체를 허망한 상태(변계소집성)로부터 '이 뭣고'를 수행함으로써 원성실성으로 변형해 완전한 불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변계소집성(遍計所集性)은 식(識)의 실성인 의타기성(유식성)을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으로 인해 발생한다. 말나식은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배우기 전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아(我)와 법(法)이 실재가 아니라 바로 심층에 있는 아뢰야식의 발현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짓 자아와 대상에 분별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다.

저녁 무렵 길 위에 놓여 있는 짚으로 꼰 새끼줄 한토막을 뱀으로 착각하는데, 중생이 무지해서 갖가지 대상에 집착하므로 생긴다. 깨달은 사람의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지만 범부의 식은 주객 대립의 인식상황 속에서 선입견으로 착각하여 본다.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우리가 착각하는 그 새끼줄은 다른 것과 서로 연기에 의한 상입, 상즉의 관계이다. 상입이란 사물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고, 상즉은 곁으로 보기에는 별개의 사물 같지만, 그 본체는 하나라는 것이다. 즉 종이는 펄프에서, 펄프는 나무에서, 나무는 흙과 물과 공기와 태양 등 수많은 요소의 인과 연으로 또 사람들의 손과 기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곧 상즉, 상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들꽃이 둘이 아닌 곧 우주 그 자체인 것이다.

원성실성(圓成實性)은 위 두 가지를 멀리 떠난 성품이며, 모든 현상의 긍극적인 이치이고 또한 진여이다. 불변하고 분별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공서 나타나는 원만한 성취가 모든 법의 참다운 성품이므로 원성실성이라 하며, 이 두 가지 공을 통해 드러나는 진여를 그 자성으로 삼는다. 그 깨달음을 성취해 금생에 생사 해탈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생활속에서 '이 뭣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 : 800W(USB)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